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HURCH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WEB WWW.OAKCC.ORG

주임신부 Fr. Gabriel Kim 김가브리엘(명식) (510) 562-3843 사무실 (510) 553-9434 Fax (510) 639-4842
사목회장 Lay council chair 게토마스(성일) (510) 589-3311 standrewoak@gmail.com
thmschae@yahoo.com 대건회관 (510) 562-8107

미사	주일 미사	오전 8:00 오전 11:00 영어미사 12시 30분	성사	고백 성사	미사 30분전	예비자 교리	주일 오전 9:30(106회의실)
	평일 미사	수,금,토 오전7:30 화,목 오후7:30		유아 세례	2주일 전 신청		
신심	성시간	매월 첫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지속적인 성체조배	병자 성사 봉성체	2주일 전 신청	통신교리 - 전화문의	
	성령 기도회	매주 토요일 미사 후 (대건회관)		혼배 성사	3개월 전 신청		
	향심 기도회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7회의실)		매월 첫 금 9 PM ~ 토 7 AM			
	하느님의 뜻영성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3회의실)					
	주일 학교	매주일 오전 11:00-12:15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40-12:50			

가장 훌륭한 시는 아직 쓰이지 않았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리지 않았다.
최고의 날들은 아직 살지 않은 날들.
가장 넓은 바다는 아직 항해되지 않았고
가장 먼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무엇을 해야할지,...
어느 길로 가야할지
더 이상 알수 없을 때
그때가 비로소
진정한 여행의 시작이다.

나짐 히크메트
<진정한 여행>



[제 1독서] 레위19, 1-2, 17-18
[화답송] 시편103(102), 1-2, 3-4, 8과10, 12-13(◎8~)
◎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네!
○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내 안의 모든 것도 거룩하신 그 이름 찬미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의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 마라.◎
○ 네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네 모든 아픔을 없애시는 분. 네 목숨을 구렁에서 구해 내시고, 자애와 자비의관을 씌우시는 분.◎
○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며, 분노에는 더디시나 자애는 넘치시네. 우리를 죄대로 다루지 않으시고, 우리의 잘못대로 갚지 않으시네.◎
○ 해 뜨는 데서 해 지는 데가 먼 것처럼, 우리의 허물들을 멀리 치우시네. 아버지가 자식을 가여워하듯,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 가여워하시네.◎

[제 2독서] 1코린3, 16-23
[복음 환호송] 1요한2, 5참조
◎ 알렐루야.
○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 참으로 하느님의 사랑이 완성되리라. ◎

[복음] 마태5, 38-48

성가	8시 미사	입당 337	봉헌 217 219	성체 159 165	파견 451
	11시 미사	입당 337	봉헌 217 219	성체 159 165	파견 451

주일 전례 봉사

구분	연중 제7주일(2월 23일)		연중 제8주일(3월 2일)		사순 제1주일(3월 9일)	
	8시	교중미사	8시	교중미사	8시	교중미사
미사해설	김글라라(순희)	허세실리아(홍숙)	이바로(명국)	이엘리사벳(자영)	임루카(승원)	조레지나(선덕)
제 1 독서	이바로(명국)	구미카엘(창희)	강요한(신호)	심미카엘(태규)	최분도(환준)	이레이몬드(창용)
제 2 독서	정스텔라(애리)	이골롬바(정연)	김안젤라(영선)	심헬레나(승화)	최분다(수영)	이베로니카(경란)
보편지향기도	독서자		독서자		독서자	

하느님 아버지의 자녀 = 거룩한 자, 완전한 자

어느 덧 2월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 기운이 벌써 우리에게 다가온 느낌입니다. 오늘 복음은 지난주에 이어 마태오 복음 5장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내용을 둘로 구분하면 “동태복수법(同態復讐法)의 극복”(마태 5, 38-42)과 “원수를 사랑하여라”(마태 5, 43-48)는 말씀입니다.

탈리온(talion)이라 부르는 동태복수법은 예수님 시대에도 분명 사람들 사이에서 시행되고 있었지만 그 정신만 이어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신체에 가해야 하는 형벌을 돈이나 그에 상응하는 재물로 배상하면서 법 자체를 완화하였습니다. 동태복수법은 오래 전 고대 법전들에도 등장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195~294조)과 아수르의 법규집에서 발견됩니다. 구약성경에는 동태복수법이 더 완고하고 강력하게 선포되었습니다.

“목숨은 목숨으로 갚아야 하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멍은 멍으로 갚아야 한다.”(탈출 21, 23-25) 아마도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시대정신에 익숙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세속의 자녀들의 논리이며 확고부동한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새로운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동태복수법을 넘어서라는 놀라운 가르침이었습니다. 전에 없었던, 제자들뿐만 아니라 당시에 그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아주 커다란 반전이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마태 5, 44) 이것은 이제까지 세속의 자녀들이 접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계명이며 새로운 원칙이었습니다.

그것은 거룩하고 완전한 자가 되어야 하는 하느님 자녀들의 논리이며 우리를 세속의 자녀들과 구분시켜주는 삶의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까지 없었던 꼭 필요한 참된 변화를 꾀하셨던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오늘 예수님의 요청이 지나치고 억지스럽

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세속에 살면서 그 말씀을 실천하고 산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불가능해보입니다.

하느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두렵고 버겁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느님의 뜻에 충실하겠다고 약속한 ‘거룩하고 완전한 자’인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 굳건한 의지만 있다면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완전해질 수 있으며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서는 은총을 베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것입니다.”(1코린 3, 23) 그러므로 우리는 하느님의 것입니다.

강윤희 토마스데아퀴노 신부
인천가톨릭대학교 조형예술대학장

2014년 신앙생활 지침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 주십니다.
(코린1, 12,7)

생명의 말씀

마음이 식스 팩인 사람

어느 별나라에서 온 멋진 외계인 청년이 등장하는 드라마를 보았습니다. 젊음을 유지한 채 400년을 죽지 않고 살아온 주인공 이야기입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죽지 않고 몇 백년을 산다면 행복할지를 상상해 보았습니다. 죽지 않는다는 것, 영생은 축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이대로, '영원히'란 것은 '지금'의 의미를 희석시켜 버리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산다면 내가 오늘 만난 사람들, 그들과 나눴던 대화, 그들과 함께 한 모든 일들이 의미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굳이 오늘 다 할 필요가 없는 일이 되고 맙니다. 무슨 일이든 굳이 열정을 쏟을 필요도 없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다하지 못한 일은 다음에 하면 그만이고, 오늘 무언가 잘못되었어도 상관없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감스럽게도, 아니 사실은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별나라 외계에서 온 사람이 아닌, 영원하지 못한 유한한 '보통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소모하는 오늘은 다시는 올 수 없는 소중한 순간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일부러라도, 애써 오늘 맺힌 일은 오늘 풀어야 합니다. 원수진 사람을 용서하고 화해하는 일, 내일로 미룰 일이 아닙니다.

다른 뺨마저 돌려 대는 일, 또 그와 함께 이천 걸음을 가주는 일은 남을 위한 일이 아니라, 나를 위한 일입니다. 후회하지 않기 위해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기회, 다른 시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케이트를 처음 배운다고 할 때, 아무리 연습을 해도 좀처럼 늘지를 않고, 늘 넘어지기만 하면 "에이, 뭐 내가 이 나이에 올림픽에 나갈 것도 아니고, 그만 배울래." 하면서 중도에 포기하거나 접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당에서 구역장 반장 등 성당 봉사를 하다 보면, 그 래선 안 될 일일 텐데 상식적이지 못한 터무니없는 일, 억울한 일, 서로 불목하는 일 등 갖가지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 혹자는 "반장일 못 해 먹겠다"고 손을 놓아버리곤 합니다. 그리고 쉬고 있는 교우 중 적지 않은 분들이 "누구누구 보기 싫어 성당 못 나가겠다"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렵다고 해서, 잘 안 된다고 해서, 보기 싫다고 해서 '회피' 할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맞닥뜨려서 '극복' 할 문제입니다. 극복함으로써 '면역력' 내지는 '내성' (耐性)을 키울 일입니다. 힘들다고 계속 피하기만 하면 늘 제자리걸음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얼굴 맞대기도 힘든데 다른 뺨마저 돌려 대라고? 하이고, 맥들이나 잘해 보세요. 난 여기서 그만 돌려요."라고 할 문제가 아닙니다.

화해나 용서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잘 안 되는 일일수록 반복과 연습이 필요한 것이지요. 요즘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는 식스 팩! 이 식스 팩은 육체 근육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영혼 역시 반복훈련을 통해 식스 팩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올해에는 몸뿐 아니라 우리 영혼과 마음가짐까지 식스 팩인 사람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명찬 신부
오금동 성요셉성당 주임



그날 그 사람 소문이 되어
사라져 갔네
한낮에 이슬이 녹아내리듯
그 사람 춤추며 짐으로 갈 때
들것도 견들건들 춤추며 갔네

글_조창환 시인 / 그림_구민정 엘리사벳

말씀의 향기

노아의 방주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특별한 청이 있을 때는 간혹 대학에서 강의를 하곤 합니다. 보통 실용음악과 학생들 앞에서 하게 되는데, 가장 먼저 보는 건 학생들이 어떤 파트를 맡고 있는가입니다.

그럼 기타를 지망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될까요? 사백 명 중에 세 명도 안 되는 실정입니다. 드럼은 더더군다나... 거의 다 보컬을 지망합니다. 성공하려는 학생들의 눈빛이 초롱초롱하죠.

저는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노래하되 작곡을 하라” 노래는 순식간에 피어났다가 질 수 있지만 작곡이나 작사를 할 수 있다는 건 그대의 자녀에게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라고 말입니다.

현재의 시각에서는 가수가 더 매력 있어 보이지만, 더 넓게 보았을 때 진짜 뮤지션은 ‘싱어송라이터’입니다.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차마 하지 못했습니다. 상처가 클까봐서요.

노아의 방주는 신에게 홍수가 날 걸 미리 들은 노아가 배를 만든다는 얘기죠. 지구상의 모든 동물들이 방주 앞에 모여 듭니다. 모두들 희망을 안고, 그 모진 홍수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 믿으며...

그러나 노아는 각종의 한 쌍씩만 배에 태웁니다. 한 쌍씩만 들어가도 배가 꼭 차죠. 저는 늘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엔 올해 신인으로 뜬 가수가 다섯 명이 안 되는데, 그 방주 앞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있는 것입니다.

이상만 명이 되는 보컬 지망생들이 있는 겁니다. 어른들이라고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어른들만이 볼 수 있는 게 간혹 있거든요.

그 답을 알고 있는데도 차마 얘기할 수 없는 비참한 현실입니다. 지금도 권하고 싶습니다. ‘작곡을 하라’ 노래를 잘 하면서 작곡을 하는 사람은 드웁니다. 두 가지를 잘하는 게 힘들지요. 어떤 기획사에서는 노아의 방주에 다 태울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백 쌍씩 태울 수 있다고요.

언젠가 어떤 아이돌 가수가 방송에서 넋두리하는 걸 들었는데, 데뷔하기 전 십 년 정도를 고생했다고 하더군요. 사람을 만든 거죠. 그렇게 만들어진 아이돌이 유명해지면 유명해질수록 초창기의 제작사와 불화가 생기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도록 한 게 아니고, 수많은 경쟁에서 무언가를 이루게 했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성공을 향한 질

주었던 것입니다.

그는 성공이라는 한탄어만 갈망하며 살아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성공에 도달하면 그 다음에 스스로 뭘 해야 할지 모르는 겁니다.

드럼은 대지요, 베이스는 기둥이며, 기타는 지붕이고, 피아노는 벽입니다. 보컬은 지어놓은 집의 인테리어입니다. 오로지 노래만을 추구한다는 것은, 뿌리가 없는 나무를 흙 위에 그럴싸하게 올려놓은 형상에 불과합니다.

노아의 방주! 방주를 넓혀야 할까요? 아님 홍수를 막아야 할까요? 수많은 의문 중 하나입니다. 어쩌면 새로운 종으로 희귀하게 태어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김태원 바오로
가수

+ 목자의 소리

“하느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초자연적인 덕,
곧 하느님의 선물인 신앙 안에서
우리는 위대한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며,
좋은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신앙의 빛」 7항

가톨릭전례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어떤 신자분으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하느님은 한 분이시다’ 는 것을 당연하게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득 의문이 생겼습니다. 하느님이 한 분이시라면 예수님은 하느님이 아니라는 말인가요? 예수님도 하느님이라고 배웠는데, 그렇다면 하느님이 두 분인 것은 아닐까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이분 질문대로 흔히 우리는 “한 분이신 하느님을 믿는다.” 고 말합니다. 가톨릭교회교리서에서도 “한 분이신 하느님을 저는 믿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가톨릭교회교리서 200항의 제목).

그러나 이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이신 하느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해야 옳습니다.(영어에서는 "I Believe in ONE God"이라고 표현하는데, 존댓말이 발달한 우리말의 특성상 “한 분”으로 번역했지만, 사실은 “하나이신” 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우리는 “**세 분이신**” 하느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느님을 믿고, 성자 하느님을 믿고, 성령 하느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분명히 서로 구별되시는 세 분의 하느님이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구별되시는 세 분의 하느님이, **본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하나”** 라는 것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그리스도교의 가장 큰 특징적인 가르침입니다. 여러 신들을 섬기는 종교(다신교)도 있고, 오직 한 분 하느님만 섬기는 종교(유대교와 이슬람교 같은 유일신교)도 있지만, “**세 분이면서 하나이신 하느님**” 을 믿는 종교는 오직 그리스도교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의 특징인 삼위일체 교리는 신자들의 생활 구석구석에 배어 있습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모든 기도문을 영광송(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기도)으로 끝맺고, 항상 성호를 긋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이처럼 가장 중요한 교리이지만 가장 난해한 교리이기도 합니다. 셋이면 셋이고, 하나면 하나지, “세 분이면서 하나이신 하느님” 은 그 자체로 모순입니다. 그러기에 삼위일체 교리를 인간의 언어로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는 신비**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의 올바른 이해가 없으면 그리스도교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1)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요한20:28)

그런데 예수님께서 등장하심으로써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하느님과 다르다** : 예수님은 하느님을 “아빠” 라고 부르시고, 그분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아버지 하느님께서 당신을 보내셨고, 그래서 그분의 일을 하고 있음을 주장하셨습니다. 여기까지만 본다면 예수님은 하느님과 당신이 분명히 구별된다고 주장하신 셈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느님과 같다 :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다른 주장들도 하셨습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요한 #10:30)라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용서를 베푸심으로써 간접적으로 당신이 하느님이심을 보여주기도 하셨습니다.(마르 #2:1~12 참조)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 전체가 당신이 하느님 아버지와 같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런 주장에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었고, 십자가에 못박았습니다.

사도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후부터 그들은 전혀 다른 각도에서 예수님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성부)과 구별되는 분이셨지만, 동시에 그분과 동일한 참 하느님이셨던 것입니다.

2) 성령께서 계시하신 삼위일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은 성령 강림을 체험합니다. 그들은 세상 밖으로 뛰쳐나가 두려움 없이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을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느님의 손길, 즉 성령을 느꼈던 것입니다.

마침내 사도들은 성령의 빛을 받아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루시는 삼위일체의 신비를 전체적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구별되시지만, 하나이시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 끝까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들과 구별되는, 삼위일체의 하느님을 믿는 완전히 새로운 믿음이 탄생한 것입니다.

강신모 프란치스코 신부/의정부교구 선교사목국장

- 성 쟁아상 바오로 트리아벨리 안인선주교의 -

주임신부 Fr. Thaddeus Kim 김타데오(선류) (925) 600-0188/사무실 (925) 600-0177

Pleasanton Middle School, Multi-Purpose Room

5001 Case Ave. Pleasanton, CA 94566

◆ 미사 안내 : 매주 주일 아침 9시/수 & 토요일 아침 9시 30분, 목요일 저녁 8시

날짜	지 향	봉 헌 자
2월23일 일	연 김중화	정데레사(혜경)
	연 이성원	정데레사(혜경)
	연 정벤자민(대업)	정데레사(혜경)
	연 이마르코(재상)	가족
	연 윤바오로(광의)	가족
	연 황식	황안나
	연 이루시아(숙자)	이마태오(영기)
	연 임그레고리오(재선)	김엘리사벳
	연 김베드로(영길)	9구역
	연 김베드로(영길)	김엘리사벳
	연 김베드로(영길)	이베로니카(성연)
	연 남울리안나 기일	정요한(석준)
	연 박준기	이울리엠타
	연 박준기	김데레사
	생 김아가다(목회)	조바실리오
	생 정안드레아(일양)	이골롬바
	생 조분도(관식)	익명
	생 이베네타(보람)	이야고보/카타리나
	생 조마오로수녀님	조마리아
	생 김아델라(다솜) 축일	가족
2월25일 화	연 최베드로(휘중)	가족
	연 전데레사	이마리아
2월26일 수	연 이루시아(숙자)	이마태오(영기)
2월28일 금	연 이루시아(숙자)	이마태오(영기)
3월 1일 토	연 서라이문도	서데레사
	연 메체도안토니오/린	서데레사
	생 레지오의 활성화	꾸리아

지난주 우리의 정성

< 주일 헌금과 참여인원 >

구분	8시	11시	영어미사	합계
미사참석인원	104	239	26	369
헌 금	\$547	\$1,598	\$26	\$2,171

< 교무금 > \$3,210

이영기(1-2) 최환준(2) 조상희(2) 정일양(2)
 김순이(2) 김원덕(1-2) 조상호(1-3) 이영길(2)
 정경희(2) 심연자(1-2) 정창희(2) 조관식(1)
 김승희(3-4) 정애리(2) 양우선(1-2) 최용일(1-2)
 이선희(2) 이성재(1-2) 임윤택(2) 김철우(2)
 차영화(3) 변귀태(2) 김용식(2) 최윤기(2)
 성동화(1-2)

< 성소후원금 > \$100

김순이(2) 정창희(2) 조덕행(1-2) 이선희(2)
 임윤택(2) 최윤기(2) 김용식(2)

< Bishop's Appeal > \$100

조덕행(1-2) 변귀태(2) 최윤기(3)

< 감사헌금 > -

~~~~ 오늘 간식은 이기하 비오/세실리아 가정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

2014년 신앙생활 지침 :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 주십니다.(코린1, 12,7)

- 공 제 사 양 -

- ◆ 3월 1일(토) : 성모신심미사(꾸리아 월례회)
- ◆ 본당신부님께서 2월 24일부터 2월 28일까지 북미주 사제연수에 참가하실 예정입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 평일미사는 평상시와 같이 있습니다.
- ◆ 2차 현금 안내  
2월 23일(오늘) : 해외파견 한국선교사 및 북미주한인사목사제협의회 후원을 위한 현금  
3월 9일 : Catholic Relief Services
- ◆ 재의 수요일 미사  
\* 3월 5일(수) 저녁 7시 30분  
\* 금육과 단식을 지켜야 합니다.  
\* 아침미사는 없습니다.
- ◆ 성지가지를 3월 2일까지 회수합니다.(성당 입구)
- ◆ 사순절 전례 <십자가의 길>  
사순시기 동안 금요일 오후 7시 20분부터  
주일 교중미사 전 10시 20분부터  
'십자가의 길' 기도를 봉헌하고 이어서 미사를 봉헌합니다.  
\* 사순시기 동안 금요일 오전 7시 30분 미사는 없습니다.
- ◆ 십자가의 길 주송자 신청  
주일 교중미사 전 십자가의 길 주송하실 분을 신청 받습니다.  
신청 : 전례부장 925-642-0756
- ◆ 모임  
\* 뜨락회(청년모임) : 매주 교중미사 후 202호실  
\* 기체조 : 매주 교중미사 후 201호실  
\* 사목회의 : 2월 23일(오늘) 교중미사 후 107호실
- ◆ 재속 프란치스코회 모임  
일시 : 3월 1일(토) 오후 12:30  
장소 : 교육관 106호실  
문의 : 김 가브리엘 510-910-2239
- ◆ 요아킴회 : 3월 2일 교중미사 후 대건회관  
- 정기총회 겸 본당신부님 환영 모임

2월 구역모임 테살로니카2서 1-3장

|       |             |           |
|-------|-------------|-----------|
| 5 구역  | 2월23일(일)미사후 | 대건회관      |
| 10 구역 | 2월23일(일)미사후 | 교육관 106호실 |

- ◆ 사진동호회 모임  
3월 2일 교중미사 후 106호실  
\* 신입 회원도 환영합니다.  
문의 : 임승주 안젤라 510-396-3234
- ◆ 영상으로 하는 사순피정  
일시 : 3월 16일(주일) 오후 1시 - 5시 30분  
참가비 : 무료(전신자 점심 제공)  
\* 피정 후 차편이 필요하신 분들은 3월 9일까지 말씀해 주시면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 영성부장 707-696-7743
- ◆ 빈첸시오 홀리스 식사 제공 봉사  
일시 : 2월 27일(목) 오후 4시  
\* 봉사해 주실 분은 친교실 게시판에 있는 싸인업 양식에 기재해 주십시오.
- ◆ 오바마케어(의료개혁법) 상담  
3월 2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 ◆ 북가주 성령쇄신 봉사자협의회 일일피정  
일시 : 3월 15일(토) 오전 9시 - 오후 4시 30분  
장소 : Presentation Center (프레젠테이션 센터)  
19480 Bear Creek Rd. Los Gatos,  
주제 : 일치의 여정  
강사 : 한승주 스테파노 산호세 성당신부님  
최동원 베드로 교육부장  
참가대상 : 각 본당 성령기도회 봉사자 및 기도회원과 관심있는 교우  
준비물 : 성경, 필기도구  
신청 및 문의 : 각 본당 성령기도회

주일학교 소식

- 주일학교 11시/영어미사 12시 30분